

강의 평가 우수 대학 II: 국제대학원

문휘창*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야 한다. 경쟁은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효율성을 높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좋은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강의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국제대학원에서는 우수한 선진 대학의 사례를 연구해본 결과, 올바른 강의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국제대학원 교수.

첫째는 강의 구조(course structure)이다. 이는 다시 '강의 준비'와 교수 및 내용의 '전문성'으로 구별된다. 강의 준비는 강의가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강의 계획안(syllabus)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교재 및 과제물 등이 적절한지 등에 관한 항목이다. 교수 및 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항목으로는 강의의 수준, 효율적인 기자재 사용, 교수의 지적 능력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강의 절차(course process)이다. 교수가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준비를 잘 하더라도 강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좋은 강의라고 볼 수 없다. 강의 절차는 다시 '전달 기술'과 '운영 원칙'으로 구별된다. 전달 기술 항목은 교수가 토론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나 과제물이 강의 내용과 어느 정도 보완 효과가 있는지 등이다. 운영 원칙에 관련해서는 과제물에 대해 교수가 피드백을 제대로 해주는지, 성적을 부여하는 원칙은 공평한지 등이다.

이상은 강의에 대한 평가이고, 수강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는 다시 '수강생의 만족도 확인'과 '수강생의 성실성'으로 구별된다. 수강생의 만족도는 해당 교수 또는 과목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지 여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수강생의 성실성은 출석 및 과제 제출의 수준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국제대학원에서는 이상의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량화된 강의 평가 설문지를 만들었다. 여기에 혹시 설문 항목에 누락될 수도 있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교수의 강점, 개선 가능성, 기타 코멘트 등을 묻는 주관식 항목도 포함시켰다.

앞에서 열거한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인 데 반하여 다음과 같이 찬반의 논란이 있는 제도도 있다.

1) 평가 횟수 및 시기에 관한 문제

평가 시기에 관해 학기 말 1회가 아닌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 등 3회 이상의 실시가 좋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평가를 여러 번 한다는 것이 소비자인 학생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렇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너무 끌려다니는, 인기 위주의 강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훌륭한 강의는 훌륭한 교수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평가는 학기 말 1회로 족하다.

2) 평가 주체 문제

평가 주체로 학생뿐 아니라 교수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교수의 기능은 연구·교육·사회봉사의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평가자가 다르다. 연구는 논문 심사 등을 통해서 다른 교수가, 교육은 수강생들이, 그리고 사회봉사는 기관장, 즉 해당 대학(원) 학(원)장이 하는 것이다. 연구 부문은 눈높이가 교수 수준이니 교수가 평가해야 하고, 강의 부문은 눈높이가 학생 수준이니 학생이 더 적절한 평가자이다. 물론 교수들이 모여 강의 기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언을 하는 것

은 좋지만 교수가 직접 강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평가 양식의 차별화 문제

평가 양식을 표준화하지 않고 다양한 양식을 만들어서 교수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역시 동의할 수 없다. 평가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동일한 잣대'이다. 잣대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성격이 전혀 다른 학과가 모인 단과대학이 아니라면 공통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골라 가능한 한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4) 평가 공개의 문제

어떤 평가도 인센티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강의 평가도 어느 정도 인사고과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완전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강의 평가의 주된 목적이 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한 피드백을 얻고, 교수의 강의 능력을 인센티브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완전 공개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잘한 사람을 상주기보다는 못한 사람을 벌주기 위한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완전히 공개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 수준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 평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잘못된 평가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잘못 제시하여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제대학원의 경험이 서울대학교에서 훌륭한 강의 평가 제도를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